

광주 찾은 해남 출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다큐 감독 **진모영**



“
**언 손 녹여주고 잡아주고...
'진짜 사랑'은 작은 배려**
”

'76년 세월을 함께 해온 노부부의 삶'에 대한민국의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원도 횡성에 사는 강계열(89) 할머니와 고(故) 조병만(98) 할아버지의 가슴 찡한 사랑과 사별을 다룬 해남 출신 진모영(44) 감독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지난 13일 현재 누적 관객 수 77만6384명을 돌파했다. <관련기사 16면>

지난달 27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15일 만인 지난 11일 총 관객 수 42만 118명을 기록, 290만 관객을 모은 역대 다큐 최고 흥행작 '워낭소리'보다 13일 일찍 '40만 명 고지'에 올랐다. 특히 지난 13일 하루 만에 전국에서 모두 24만 77618명의 관객을 모으는 등 흥행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1만 명 모으기도 힘든 다큐로서는 이례적인 일로 지난 주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진모영 감독이 지난 13일 광주를 찾았다. 진 감독은 이날 오후 4시 광주 CGV터미널점에서 영화 상영 후 관객과 만났다. 이날 행사에는 백양사 방장인 지선 스님 등이 참석했다.

영화 상영에 앞서 만난 진 감독은 "예상 못 했던 반응에 감사하다"며 "독립 영화가 세상에 나왔을 때 1만~2만 모으기도 힘든 것이 현실인데,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을 영화를 통해 보여줬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98세 할아버지·89세 할머니 76년 '부부의 삶' 담아 관객 77만6천... '워낭소리'보다 13일 먼저 40만 고지

"상대를 위한 삶 성찰...작은 것들이 큰 사랑 만들어"

문성고와 전남대 법대를 나온 그는 그동안 독립PD로 활동했다. 2013년 이 참여하면서 영화를 시작한 그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3개월 동안 강원도 횡성을 오가며 노부부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다.

전날 영화 촬영 중 세상을 떠난 조병만 할아버지의 1주기에 참석했다는 진 감독은 "할머니는 관객 수나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고 막내(할머니는 진 감독을 막내처럼 여긴다)가 고생했는데 잘 된다고 그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고 말했다.

진 감독은 애초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두 분의 삶을 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화를 촬영하면서 조병만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됐고, 예상하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사랑'과 '이별'을 모두 담게 됐다.

"처음에는 진짜 이야기, 우리 시대의 진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두 분의 삶은 진짜였습니다. 서로 시린 손을 붙여주고, 언덕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저는 습관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가 습관처럼 가슴에 자리하면서 자연스레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게 두 분이 가진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결국은 큰 사랑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진 감독이 생각하는 흥행 비결은 뭘까. "무언가 거창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꿈꿔오던 것을 두 분이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위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막상 표현하기는 힘들죠. 두 분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그런 모습 때문에 두 분의 삶을 영화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성찰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40대 부부들이 많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20대가 반응했고, 그분들이 가시면서 티켓을 예매해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관객과의 대화 중 일부.
-강계열 할머니는 어디에 계시나.
▲그동안 '공순이'(강아지)와 함께 횡성에 머물고 계셨다. 대신 겨울에 출고, 영화가 개봉하면서 관심이 많아져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자녀분의 집으로 피신을 갔다. 저희 제작진의 죄가 크다.
-두 분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카메라에 강한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다. 이미 방송에 출연하신 경험도 있어서 "카메라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정도만 부탁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두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꼭 같이 먹자고 했던 것이다. 하하.

-어떻게 두 분을 영화 소재로 하게 됐나.

▲두 분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장에 가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 모습이 우연히 횡성에 있는 신문에 찍혔고, 그래서 방송에 나가게 됐다. 그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사랑을 바꿔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대본은 없었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 할머니는 정말 교양있는 분이시고, 할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시다. (두 분 대화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평생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살아오셨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두 분이 살아온 세월의 한 지점을 본 것뿐이다.

-영화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도하(公無渡河)'에서 빌려왔다. 두 분이 사시는 집 앞에 강이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신 후부터는 할머니가 혼자 서 계시곤 했다. 문득 할아버지가 아프신 후 누군가는 저 강을 건너 영원이 돌아오지 않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평생 스승인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께 감사 드린다.
/글·사진=김경민기자 kki@

권은희 의원·시민모임 '무등산 정상복원 토론회'

"방송·통신, 장성 불태산 이전 검토"

"원효사시설지구, 취가정 일원 이주"

(충효동)

무등산 정상 복원을 주제로 지난 12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국방부는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에 공감을 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지역 7개 시민·환경단체도 이날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광주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가정 '무등산 정상 이전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군부대 이전과 함께 무등산 정상 복원 핵심 사업으로 지목되는 방송·통신 시설과 원효사 집단시설 지구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무등산 정상부에 위치한 방송·통신 시설은 공원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장불태에는 현재 KBS 송신소(1966년 설치·건물 면적 690㎡), KT 중계소(1967년·1360㎡)가 ▲충봉에는 MBC 송신소(1970년·509㎡), KBC 송신소(1995년·611㎡) ▲북봉에는 KBS중계소(1966년·45㎡)가 자리 잡아 무등산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동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과장은 "무등산 방송통신 시설 정비 방안으로 공원 외 지역인 장성 불태산으로 모든 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대안으로는 장불태로

시설을 통합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원 밖으로 방송통신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국립공원 내 훼손지 및 경관 복원에 효과적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원 밖 이전을 우선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서비스영역과 통신망 구성 가능성 등을 두루 감안한 결과, 이전 최적지로 꼽힌 장성 불태산은 도로와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전무한 탓에 이전에는 8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원효사 집단 시설지구는 광주시 북구 충효동 취가정(醉歌亭) 일원로의 이주가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원효사 집단 시설지구에는 현재 상가 39가구가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20년대 중반까지 시설을 공원 밖으로 이주시킬 예정이다. 공단 측은 39가구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32가구는 이주단지가 조성되면 이주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나머지 가구도 이주 자체에는 반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광주시와 함께 취가정 지구를 이주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필요한 행정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시민모임'이 마련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네아이 엄마, 1일 광주시장 됐다

'1일 시민시장' 양서진씨, 오늘 하루 시장 참여

자녀 넷을 둔 30대 워킹맘이 광주시장이 됐다. 광주시는 14일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1일 시민시장'에 뽑힌 양서진(여·38·사진)씨가 15일 하루 동안 광주시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4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첫 '1일 시민시장'이 된 양씨는 네 자녀를 둔 엄마로, 최근 출산 후 10년이라는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LED관련 업체에 입사한 직장여성이기도 하다.

양씨는 1일 시장 자격으로 오전 8시 시장에 출근한 뒤 윤장현 시장과 함께 간부 회의에 참석해 시장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 및 2015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의 대회 준비상황 등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리는 광

주도시공사 주관 김장 나눔행사장으로 이동해 다문화 가족과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김장 당기에도 참여한다.

1일 시장 체험에 나선 양씨는 "1일 시장도 시장인 만큼 아이들에게도 자부심을 심어주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1일 시민시장 공모에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른까지 41명이 응모해 시민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전,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5 선견지명 부동산 시장 전망과 분석 무료 대 특강

부동산 최고 실무 전문가 김영표 대표의 확실하게 성공하는 부동산 성공투자 비법!!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4. 12. 17(수)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 / 의 / 내 / 용

- 2014년, 본격적 부동산 회복시장의 신호탄을 쏘았다 - 최경한 노믹스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 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투자처 매물분석 및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자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자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자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클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용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점술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